

보도 희망 일시	배포 즉시/ 2024. 7. 1.(월)
문의	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
	김시형 전화: 740-8607, 이메일: syeongkim@snu.ac.kr

배포일: 2024.7.1.(월)

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, 서울역 쪽방촌에 구강관리센터 운영

-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, 서울역 쪽방촌에 ‘우리동네구강관리 플러스센터’ 운영
 -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 밀집지역에 ‘우리동네 구강관리 플러스센터’를 운영하여 서울역, 남대문,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료 치과 진료를 제공한다. 이번 구강관리센터 개소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, 사회적 취약계층인 쪽방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고, 지속적인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- 서울역 쪽방촌에 문을 여는 ‘우리동네구강관리 플러스센터(이하 ‘플러스 센터’)’ 는 7월 1일 오후 2시 30분 개소식을 갖는다.
 - 개소식에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, 오세훈 서울시장, 우리금융그룹회장과 쪽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.

- 플러스 센터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및 치과대학·치의

학대학원 동창회와 함께 협력하여 진료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.

□ 플러스 센터는 치과 진료의자 4대와 파노라마(x-ray) 등 진료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갖추고, 치료와 행정업무를 담당할 치과위생사·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.

○ 이 센터에서는 치과 검진, 구강 질환 치료, 치과보철을 통한 구강 기능 재활 치료를 포함하여,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강 질환 예방·관리, 구강 건강 교육·홍보 서비스를 제공한다. 또한 파노라마(X-ray) 장비를 통해 정밀한 진단을 요하는 임플란트, 틀니 치료도 가능할 예정이다.

○ 특히 이 센터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.

□ 플러스 센터는 서울역(동자동), 남대문, 영등포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 3회(월, 화, 금) 진료를 제공하며, 구강관리 교육과 구강보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쪽방 주민을 포함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. 또한, 구강암 등 난이도가 높은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, 서울시 5대 쪽방 주민 누구나 플러스 센터를 통해 서울대치과병원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7월중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, 부천대학교 치위생학과,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, 교수 및 동창회원과 치위생학과 학생 및 교수들이 구강관리센터의 진료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

되어, 더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권호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은 “이번 구강관리센터 개소는 쪽방촌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,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” 고 밝혔다.